

제20차 이사회

'93년 사업계획승인 WEC동경총회참여 방안 등 논의

한국에너지협의회/WEC한국국내위원회 제20차 理事會가 지난 11월30일 오후 3시부터 한국전력본사 7층 회의실에서 安秉華 회장(한국전력사장) 주재로 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20차 理事會는 WEC15차 마드리드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WEC와의 유대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팽배한 가운데 열렸으므로 주요 논의사항은 오는 95년에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WEC 16차 총회에 우리나라가 어떤 형식과 어떤 정도로 참여하느냐에 모아졌다.

먼저 이사회는 관례에 따라 WEC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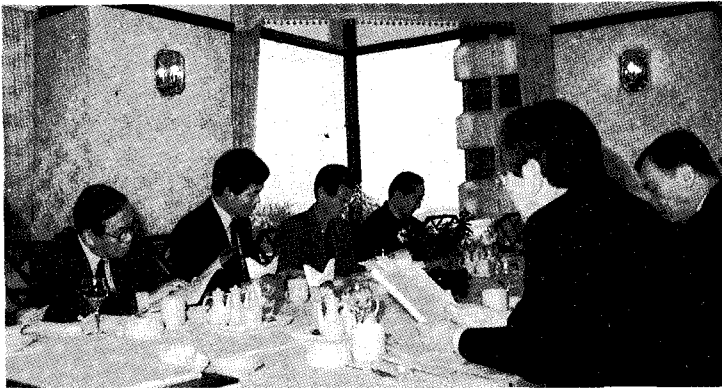
차 마드리드 총회에 다녀와 느낀 소감을 결들인 安秉華회장의 인사말이 있는 다음 정관14조2항에 의하여 새로 취임한 徐東烈에너지관리공단 理事長을 에너지協의 새理事로 맞이하였음을 알리는 보고안건이 원안대로 접수됐으며 그밖에 92년도 주요사업실적과 2억4천만원규모의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의 결의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토의사항에 들어가서 동경총회 참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는데 먼저 鄭根謨이사(에너지공학회장/亞洲大석좌교수)는 WEC와의 유대강화가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전제하고 제16차 WEC 총회가 95년에 동경에서 열려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에 있는만큼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위선양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鄭根謨이사는 구체적으로 우선 훌륭한 논문이 많이 제출되어 총회 본회의에서 발표해야 하고 그밖에 우리나라의 범 에너지계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논문의 創製를 위해서는 에너지공학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이사들이 이러한 의견에 대해 동



제10차 한국에너지협의회 기술자문 위원회가 「럭키」빌딩 회의실에서 열렸다.

에너지協 技術諮問委員會가 지난 11월6日(금) 여의도 트윈타워빌딩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제10차 기술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WEC 제15차 마드리드 총회에 한국에서 25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새로운 인식을 안고 돌아온 뒤끝에 열린 회의이어서 여러가지의 고식적 상황에 대한 현

상타과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어느때보다도 당면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技術諮問委 鄭根謨위원장(한국에너지공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돼있는 때에 WEC와의 유대강화 필요성과 다음 WEC東京총회(1995년)을 앞두고 우리 WEC國內위원회가 위상을 강화할 수 있

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기술자문위의 보강은 물론 에너지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金榮哲간사(에너지協상임이사)로부터 WEC 제15차 「마드리드」총회 참가결과보고, 92년도 주요사업실적과 9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등이 있는 다음 WEC 제16차 동경총회 등의 참여 방안 등 에너지 협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위원들은 한결같이 에너지協이 더욱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각 에너지분야와 회원사에 고루 자료나 정보의 전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협의회의 조직이나 예

職位	姓名	所屬 및 職責
會長	安秉華	韓國電力公社 社長
副會長	金侖鎬	大韓石炭公社 社長
〃	金恒德	(株)油公 社長
〃	李東昊	韓國電力公社 副社長
〃	李宗勳	韓國電力技術(株) 社長
理事	具斗會	湖南精油(株) 社長
〃	徐東烈	에너지관리公團 理事長
〃	安千學	韓國重工業(株) 社長
〃	李經植	韓國가스公社 社長
〃	李太敎	韓國水資源公社 社長
〃	李會晟	에너지經濟研究院 院長
〃	吳正茂	韓國에너지技術(研) 所長
〃	鄭夢準	現代重工業(株) 會長
〃	丁明植	浦項綜合製鐵(株) 副會長
〃	鄭根讓	亞洲大學校 碩座教授
〃	丁萬吉	大韓鑛業振興公社 社長
〃	千性享	韓國科學技術院 院長
常任理事	金榮哲	에너지協議會 事務局長
監事	金鍾環	湖油에너지(株) 社長
〃	張基玉	韓電機工(株) 社長

의하는 가운데 安秉華회장은 에너지문제가 더욱 중요성을 띠어가고 있는 때에 우리는 이제까지 WEC총회 참여문제를 고식적으로 다루어왔다고 반성하고 WEC동경총회는 사전에 조직적이며 면밀한 준비작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20차 이사회가 한국전력본사 7층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여함으로써 내실을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安秉華회장은 이어서 WEC총회에 제출되는 논문은 경험칙의 내용보다는 보다 알차며 창의적인 내용이 담긴 논문들이 많이 제출되어 우리의 위상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20차 이사회는 특정한 현안을 놓

고 전향적인 의견이 개진된 발전적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그동안의 안전추진적인 요식행위의 틀을 벗어난 면모를 보여준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한국에너지협의회/WEC한국 국내위원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분야
委員長	鄭根讓	亞洲大學校 碩座教授	原子力
副委員長	南廷一	韓國電力公社 技術役	電力
委員	鮮于賢範	韓國가스公社 副社長	가스
〃	金浩卓	서울大學校 教授	에너지 정책
〃	李明善	大韓石炭公社 本部長	石炭
〃	金泰文	(株)油公 監事	石油
〃	朴元勳	韓國科學技術研究院 研究團長	環境
〃	崔壽鉉	韓國에너지技術研究所 센터長	에너지 節約
〃	林炳宰	에너지 經濟研究院 計量分析研究팀장	에너지 정책
〃	崔基鍊	에너지資源技術개발 支援센터 所長	代替 에너지
〃	金弘泰	韓電技術(株) 技術開發 本部長	電力
幹事	金榮哲	韓國에너지協議會 事務局長	에너지 정책

제10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보강,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산 등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번 WEC 15차 마드리드 총회에서는 여러가지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으므로 앞으로는 WEC총회에서 논의된 주요문제들을 놓고 국내에서도 워크숍 등을 열어 다시 천착(음미)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② 에너지協은 기관지 및 기타 정보

전달 발간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회사사는 물론 각계에 고루 배부함으로써 에너지協의 존재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야 한다.

③ 電力界는 물론 石油가스업계, 石炭업계 그밖에 에너지문제 연구기관, 각 대학 에너지관련학과 등에 골고루 사업의 효과와 혜택이 전달되도록 균형을 취해야 한다 등이다.

그런데 이번엔 2명이 보강된 한국에너지협의회 기술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WEC 15차총회 귀국 간담회 “국제회의에 소홀했다” 自省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10월 8일 WEC 제 15 차 총회 참가자 귀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는 분야별 참가결과와 향후 WEC 총회의 참가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총회참가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李寬 21세기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내에서 국제화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으나 정작 국외활동에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우리의 역할이 미흡한게 사실이며 이번 WEC 총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참가소감을 피력하였다.

마드리드총회 참가시 安秉華 WEC 한국국내위원회 의장 주최 조찬회에서 95년 東京총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므로 현지점에서는 그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급선무임을 참석자들은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南延一 한전 기술역은 한전이 주축이된 Task Force팀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 WEC는 최근 Regional Activity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같은 활동에 적극적·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鄭根模 아주대 석좌교수(에너지공학회장)는 현재 국내에서 한전 이외에는

WEC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없는 실정임으로 기술적측면에서 에너지협의회 역할이 보다 심층적으로 강화돼야 할 것이며, 에너지협의회 회원구성에 있어서 관련분야 기업체의 보다 폭넓은 가입 유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WEC총회에 참석하고 나서야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에너지의 중요성에 맞추어 WEC와의 유대강화에 힘쓰는 한편 한국 에너지협회도 조직, 예산, 사업계획 등이 더욱 강화되는 기틀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WEC 총회참가자 전원이 귀국간담회를 열고 국제회의에 소홀했음을 自省했다.〉

WEC 간행물 배포 「WEC에너지 자원조사」등 2종

한국 에너지협의회는 지난 12월 WEC 제 15 차 총회시 입수한 주요 자료를 회원사, 에너지관련 기관, 대학등에 배포하였다.

이 가운데 「WEC Survey of Energy Resources 1992」는 WEC 산하 「에너지자원조사 위원회」가 1989년 부터 1992년에 걸쳐 WEC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관으로부터 조사수집한 최신자료를 바

탕으로 1989년 도판을 수정보완하여 발간한 것이다.

이 자료는 세계 150여개국의 再生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의 부존량, 생산량 및 소비량에 관한 통계표를 제시하고 광범위한 국가별 주석을 달았으며 탐사방법, R&D 계획 및 자원량에 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이제까지 나온 에너지 발간물로서는 에너지자원 전

